

1. “예수”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안심이 되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힘이 납니다.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면 미래가 안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인생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것마저 사라진다면, 너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가장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불러왔던 이름 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이름처럼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姓)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트로스(Christos) 에서 온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단순한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참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삶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단어 하나를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여러 안전장치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재정적 안정, 사회적 지위, 좋은 인간관계라는 든든한 성벽을 쌓아 놓고, 혹시 그것들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예수님을 마지막 보험처럼 남겨 두려 합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결국 돈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소망들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고, 높은 지위를 얻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며,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 안전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풍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믿고 있던 것들을 먼저 흔듭니다.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줄 소망이 있는가?”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모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과 고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그분의 통치 아래 맡기는 것입니다.

돈이 흔들릴 때에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명예가 사라질 때에도,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최근에 나에게 가장 큰 안정감이나 자신감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_\_\_\_\_

- 힘들거나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 돈, 계획, 성취, 신앙 등)

→ \_\_\_\_\_

- 글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_\_\_\_\_

-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과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은 어떻게 다를까요?

→ \_\_\_\_\_

-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던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무엇을 배웠나요?

→ \_\_\_\_\_

-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 \_\_\_\_\_

###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돈이나 명예,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